



즉시 배포용: 2017 년 9 월 2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RICARDO ROSSELLÓ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지원하는 허리케인 마리아의 피해 후의 긴급 물자와 서비스에 대해 정부 간 공식 요청 발표

Cuomo 주지사, **NYPA** 엔지니어, 통역가와 감독관 및 **DEC** 드론과 드론 파일럿들이 내일 아침 가장 이른 항공편으로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여 전력망 재복구 지원

JetBlue 비행기로 산후안에 긴급 보급품 운송

뉴욕주 방위군, 다음날 출발을 대기

뉴욕, 허리케인 마리아 여파의 영향을 입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구호 작업에 지원을 약속

Ricardo Rosselló 주지사는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에게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 이후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작업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간의 응급관리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공식 요청으로 Cuomo 주지사는 주요 긴급대응 사무관들과 함께 푸에르토리코의 파괴된 전력망 복구를 도울 전문가들을 대동하여 내일 아침 가장 이른 항공편으로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뉴욕은 JetBlue 에서 무료 제공한 비행기로 다양한 응급물자를 배송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도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서 지원하는 드론과 두 명의 드론 파일럿을 동반한 10 명의 엔지니어, 도시계획 실무자, 기술 감독관 및 통역사들을 보내 푸에르토리코 전력망 검사와 재건을 지원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방위군에 다음날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하여 대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기타 어느 주보다도 친밀합니다. 허리케인 마리아의 상상한 초월한 파괴를 당한 후 재건하는

모습을 본 푸에르토리코 형제자매들을 보고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요청한 자원과 인원들을 보내 이 섬나라의 재건을 도우며 푸에르토리코인 커뮤니티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Ricardo Rosselló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의 폐해 이후 저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가 중요한 물품, 서비스 및 재해 정도를 평가하고 복구 계획을 세울 전문가들을 제공할 것을 정부 간 공식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끔찍한 시련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오랜 역사와 깊은 정을 나눈 **Cuomo** 주지사와 뉴욕주와 같은 벗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푸에르토리코를 찾는 주지사님과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우리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 재건 절차에 들어갈 때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etBlue 사장 겸 최고 **CEO Robin Haye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끔찍한 일을 겪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복구를 시작하는 시기에 구호 항공편을 지원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해를 겪은 모든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구 작업의 선두에 서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현장에서 지원해주시는 주 방위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일 큰 항공사로서 그들과 함께 승무원, 고객 및 섬 전역의 커뮤니티 지원에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Cuomo** 주지사는 **Rosselló** 주지사가 요청한 물품들과 중요 자원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연맹을 구성하였습니다. 뉴욕 전력청도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 PREPA**)의 요청에 맞게 송전 패해 평가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환경보존부에서 지원하는 드론과 두 명의 드론 파일럿을 동반한 10 명의 송전 감독관, 발전 및 송전 엔지니어, 송전 기획자 및 통역사로 구성됩니다.

NYPA/DEC 팀이 **PREPA** 를 도와 완성할 임무:

- 그들의 발전, 송전 및 배전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피해 평가하기.
- 복원과 재건 작업의 우선순위 정하기.
- **PREPA** 와 미국 공영전기사업자협회(**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 에디슨전기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미국 농촌전기사업자협회(**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와 연방 재해대책관리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같은 관련 연방 기관 등 미국 유틸리티 거래 단체로 구성된 미국 전기부문 산하기관 조율위원회(**Electricity Subsector Coordinating Council**) 사이 협력을 조율하여 미국 측에서 포괄적인 피해 평가를 진행한 후 푸에르토리코로 배정되는 상호원조 자원들을 관리

Cuomo 주지사가 구성한 대표단에는 슈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 트로피컬 스톰 리(Tropical Storm Lee) 등과 같은 위기를 다루었던 지역 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사고 관리 및 재해 복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표단은 이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푸에르토리코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중요시설의 상태들을 파악하고 지원 자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표단 구성:

- Isabel Smith 대령, 참모장, 뉴욕주 방위군 제 53 육군사령부(53rd Troop Command)소속.
- Roger Parrino,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 Gil Quiniones, 뉴욕 전력청 사장 겸 CEO
-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
- Robert Mujica, 뉴욕주 예산 담당관.

허리케인 하비, 이르마, 조스, 그리고 지금은 마리아까지 탄생시킨 변덕스럽고 파괴적인 허리케인 시즌에 뉴욕주는 이런 파괴적인 폭풍우의 피해를 본 지역에 계속하여 지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 공군(New York Air National Guard) 항공기, 선함 및 뉴욕 공군 제 106 구조 비행단(106th Rescue Wing) 소속의 항공병들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Hurricane Harvey)에 대한 대응 작업을 돕는데 파견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8월 31일에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멀티 주 기관 구조팀인 30명으로 구성된 주 사고관리팀(Incident Management Team, IMT)을 텍사스에 파견하였습니다.

9월 7일에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가 지나간 즉시 최초 탐색 및 구조를 돕기 위하여 뉴욕 항공 주 방위군(New York Air National Guard) 106번 항공 구조단(106th Rescue Wing) 출신 공군 130명, HH-60 페이브호크(Pave Hawk) 구조 헬리콥터 세 대, HC-130 탐색구조 항공기 두 대, 조디악(Zodiac) 고무 구명보트 세 척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를 방문하여 플로리다주 응급대책 작업을 도왔던 뉴욕주의 도시수색구조팀(Urban Search and Rescue Team)인 NYTF-2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팀은 9월 18일에 복귀하였습니다.

9월 11일 UH-60 블랙호크(Blackhawk) 헬리콥터 10대와 뉴욕주 방위군(New York Army National Guard) 전투항공부대 42여단(Combat Aviation Brigade) 출신 병사 55명이 허리케인 이르마(Irma)가 플로리다에 입힌 피해를 원조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추가로 9월 10일 일요일, 허리케인 이르마(Irma) 대응과 플로리다주 방위군(Florida National Guard) 지원을 위하여 제 105 항공 비행단(105th Airlift Wing)

공군이 C-17 항공기 사용 병력 7 명으로 구성된 미시시피 위성 통신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뉴욕 항공 주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 106 번 항공 구조단(Rescue Wing) 출신 공군 124 명은 허리케인 하비(Harvey)에 대응하기 위하여 텍사스에 배치되었으며 허리케인 이르마(Irma)에 대응하기 위하여 푸에르토리코에 개별 배치되었습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U.S. Virgin Islands)의 Mapp 주지사의 요청을 받고 Cuomo 주지사 와 주 평가팀은 피해를 본 버진아일랜드를 방문하여 그들이 복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뉴욕이 추가 지원을 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를 입은 다른 주들을 돕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매슈, 프랜시스, 이반, 데니스(Hurricane Matthew, Frances, Ivan, Dennis)가 휩쓸고 간 뒤에도 플로리다에 이와 같은 지원팀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구스타브(Hurricane Gustav)가 덮친 후에도 18 명으로 구성된 팀을 추가 파견했고 또한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후에는 300 명 이상의 다수 기관 합동팀을 루이지애나에 파견하여 지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